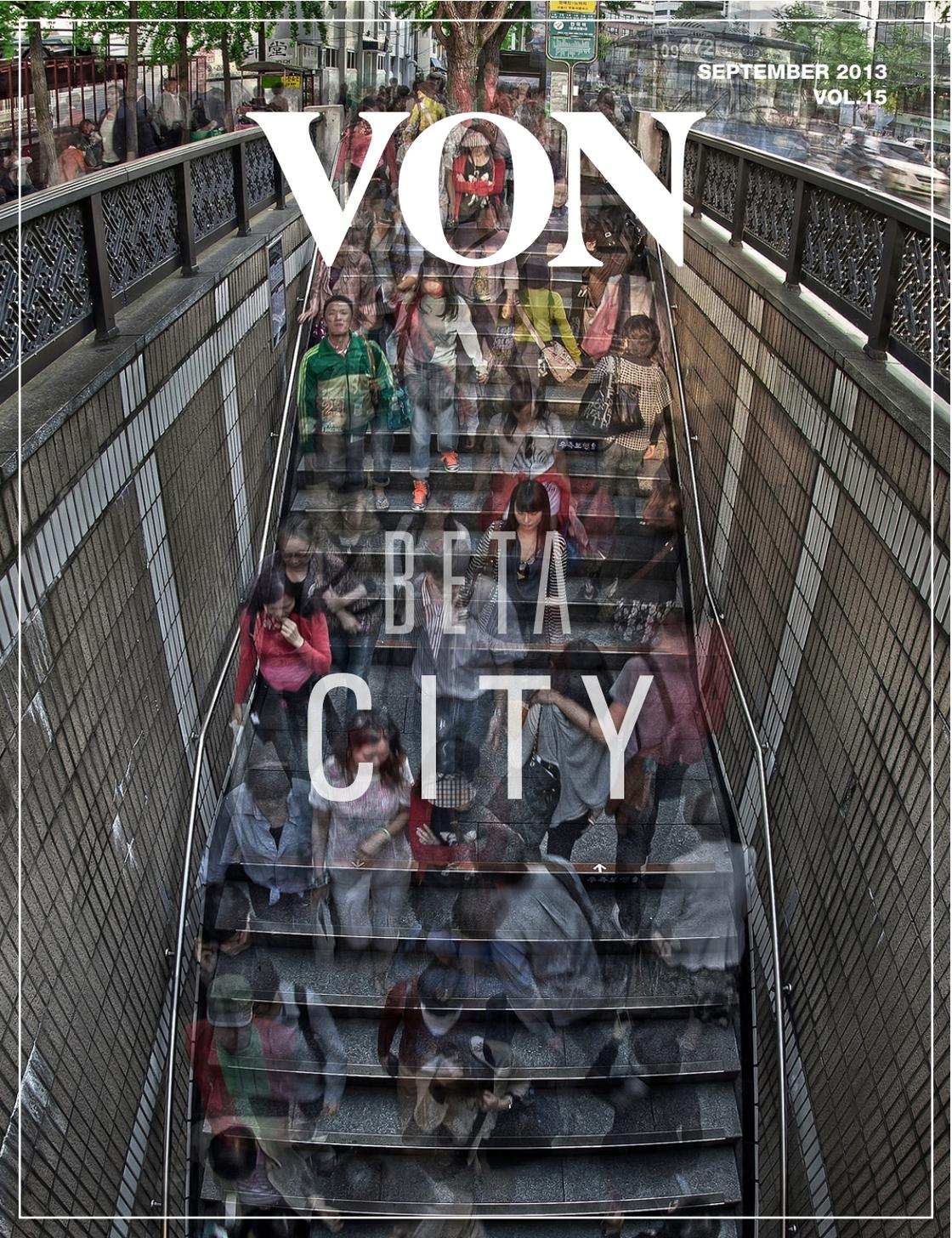


SEPTEMBER 2013
VOL.15

VON

BETA

CITY



VON

CONTENTS

September 2013

Special



ISSUE 1
타인의 도시



ISSUE 2
플라이잉 시티!



ISSUE 3
플러싱 레포트



ISSUE 4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ISSUE 5
환영의 콜라주

Photo



REAL INTERVIEW
염중호



FROM ABROAD
브루스 데이비드슨



VON'S PORTFOLIO
정지현



PHOTO IN LIFE
박신흥



ON THE ROAD
인도양 레위니옹



AFTER PHOTO
실제와 상황의 관계



ON THE BIKE
치유의 강 아리수



A MONTH ON THE PAPER
더위



PHOTO KEYWORDS
Grab Shot



PHOTO MUSE
비발디와 원성원



TASTY ROAD
제주 원양폭포



POWER CLASSIC
소설가 김영하



PHOTO BOOK
신간 소개

Gallery



NEWS
최민식 사진상 제정



EXHIBITION
이달의 사진전

포토매거진 VON
홈페이지 오픈!

www.imagevon.com

매거진과는 다른 VON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막스발
(膜思發)



막사발은 <VON> 제작사로서
사진과 세상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기획·디자인 활동을 전개하는
회사입니다.

FACEBOOK

TWITTER

NAVER CAFE

COVER PHOTO



SPECIAL_ISSUE 2

Move, 2010, digital print,
77×115cm ©박재영

사진심리학자
신수진의
REAL INTERVIEW

찍고 해석 그리고
하기
⋮
소통
하기

염중호 ⓘ



사진가

염중호

1965년 서울 출생으로 중앙대학교와 프랑스 파리 8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였으며, 동국대학교에서 영화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프랑스와 서울을 오가며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기록과 상상, 재현의 중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주변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관계와 질서를 찾으려 한다. 지난해와 올해에 각각 열린 기획전 〈타인의 취향〉(원앤제이 갤러리)과 〈예의를 잃지 맙시다〉(하이트컬렉션)를 통해서는 일상을 기록한 파편적인 이미지들을 다른 작가들과 공유해 새로운 해석과 다양한 매체의 작품의 생산하는 협업 프로젝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개인전 〈필로시피 가든 젤코바 트리〉(서남미술관, 1999), 〈백만장자와 숙녀〉(일주아트센터, 2001), 〈새로운 경계〉(원앤제이 갤러리, 2009)를 가진 바 있으며, 제3회 광주비엔날레(2000)를 비롯해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

찍고 해석하기, 그리고 소통하기

신(신수진) 작가로서 지닌 핵심적인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진을 하십니까?

염(염중호) 한국 사진계에서 저는 전통적인 사진에 집중하던 세대와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사진을 하는 젊은 세대의 작가들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진은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찍혀지지만 세계에 대한 저만의 해석을 담고자 한 것들입니다. 아마도 저는 '찍기'에 몰두한 마지막 세대이면서 동시에 '해석하기'를 시도한 첫 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오셨는데, 다른 작가들과 생각과 표현 방법을 나누는 작업도 그중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염 저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만들어 내거나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보는 사람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이



〈타인의 취향〉(원앤제이 갤러리, 2012)과 〈예의를 잃지 마시다〉(하이트컬렉션, 2013) 전시입니다. 조각이나 회화 등을 표현 방법으로 쓰는 작가들에게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그것을 하나의 모티브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 사진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의 고정된 의미가 아닌 '떠 있는 / 다니는 섬' 같은 의미를 찾아가는 경험이지요.

신 협업한 작가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결과물에서 현대미술의 여러 개념들이 드러나는 것이 흥미롭고,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사진을 활용하는 작가로서의 역할을 확장시킨 의미도 있습니다.

염 저는 사진이라는 매체만이 특히 더 우월하다 혹은 사진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진만이 유일한 내 길이라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다양한 매체들이 갖는 특징들을 어떻게 내안으로 수용해서 이것들을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로 쓸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매체에 대한 두려

찍고 해석하기, 그리고 소통하기

움이 별로 없어요. 모든 매체들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매체의 주인이 되어서 영화도 찍고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진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다른 매체들은 자신의 매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저는 그런 지점에서 모든 매체가 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전반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질문을 가지게 만드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소통성에 대해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작가들 간이나 관객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선 얼마나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염 이번 작업에서 사진을 찍음으로 해서 대상이 구원 받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사진엔 버려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졌지만 사진에 의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발견되고 보임으로써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경험은 나와 대상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다른 작가와의 관계 뿐 아니라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해석이라는 것은 사실 취향의 문제입니다. 더 좋은 사진, 더 좋은 작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열려 있는 작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예술가들이, 소위 말하는 고급예술을 하는 분들이 보면 별로 작품 같아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신 그런 면에서 사진 혹은 예술의 경계를 탐색하는 장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염 저는 매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다고보다 사진이라는 매체의 영역을 확장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좋고 나쁨,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엔 취향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것인데, 그 취향은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교육이 사람을 같은 취향으로 만든다는 데에 있습니다. 취향의 다양성을 오히려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자신의 취향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어렵다는 말을

찍고 해석하기, 그리고 소통하기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편견이 사진을 보는 태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 우리가 사진을 매체로 이용하는 작가에 대해선 특히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매체로부터 벗어나는 시도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염 제 경우는 사진을 다루는 작가로서 장인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도 가난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대학 시절부터 많은 돈을 들어서 좋은 프린트와 좋은 액자를 하는 것이 프로답다는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싫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싶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가볍고 별 볼일 없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가치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 시도는 흔히 개념예술 쪽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저는 개념적인 사진과 표현적인 사진의 중간쯤에 존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 결국 그런 정신이 작가로서 상대적인 차별성을 지니게 했으니,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_신수진(사진심리학자)



신수진은 사진심리학자로,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시각심리학과 사진이론을 접목시켜 과학과 예술이 융합되는 독특한 영역을 개척했다. 수용자 중심의 예술비평을 바탕으로 시각적 소통이 필요한 다양한 장면에서 일한다. 현재, 예술의 전당 전자신문위원, 한진그룹 일우재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임프리마 코리아 이미지저작권 고문 등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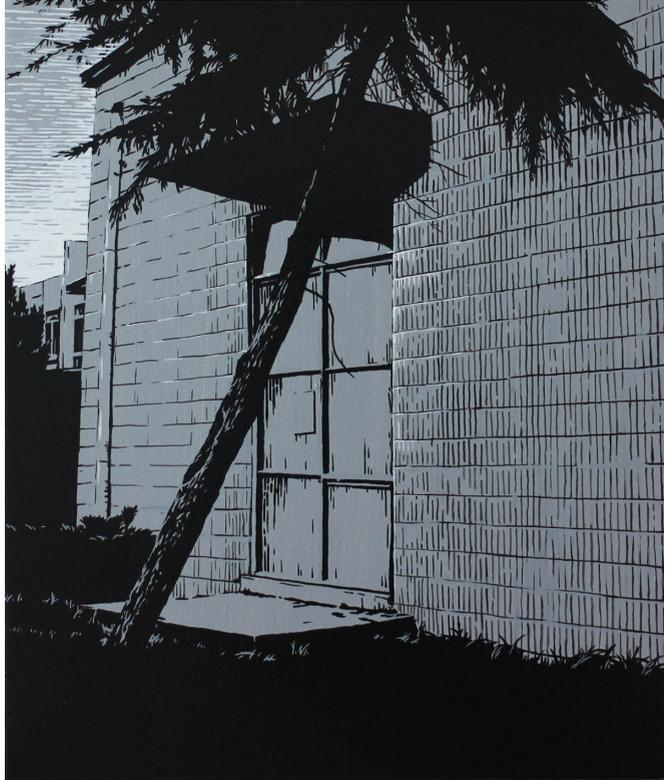








))
작업의 주제는 '숨겨나 숨겨진'이고,
이전부터 머릿속을 떠돌던 무언가가
이번 협업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려진 것 같다. _권경환



권경환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를 졸업했으며, 원앤제이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비롯하여 <젊은 모색>(국립현대미술관, 2008)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그는 네온사인, 오브제, 연필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대중문화에 깃든 여러 코드와 함께 전쟁, 살인, 개인의 존재 방식 등에 대해 유머러스한 문제 제기를 시도한다.

(좌)예의를 잃지 맙시다, 2010, inkjet print, 100×100cm ©염중호
(우)4개의 한 그림_두 번째, 2013, 캔버스에 아크릴릭, 49×42cm ©권경환



))
염중호의 작업 중에서 내게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기력함, 공허함, 어쩔 수 없는 감정을 일으키는 작품들이다.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거나 의미를 중용하지 않는 작업으로 상상되었고, 나의 작업은 이를 스트라이프의 반복되는 구성 혹은 격자형 구성으로 다시 구성해 환기시키는 일이다. _김수영



김수영은 2001년부터 르 꼬르뷔제의 유니테 다비타시옹(집합주택, Unité d'habitation)과 한국 근대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반복성, 차이, 균제 등 추상적 의미를 회화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최근에는 건물과 도시가 만드는 추상적 이미지를 실재 안에서의 허구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특히 한국 근대 건축물의 표면에서 드러나는 차이와 전형성을 작업으로 풀어가고 있다.

(좌)예의를 잃지 맙시다, #20, 2012, inkjet print, 110×110cm ©염중호
(우)#20, 2013, 종이에 유화, 49.7×38.7cm ©김수영



))
염중호의 사진 안에는 여러 오브제나
요소들이 보인다.
그러한 오브제나 상황들이 제시하는
일종의 정신성에 집중했다. _최대진



최대진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에게 '현재'는 매번 반복되는 악몽 같은 사건들이 현란하게 펼쳐지는 공간이다. 그는 작업을 통해서 세계를 향한 에너지와 분노를 표출하고 질문을 던지며, 특히 은유와 상상과 자신의 감각으로 사회, 역사적 의식을 드러낸다. 그리고 사진, 영상, 회화, 조각 등 매체의 제한 없이 다양한 시각적 표현 방식을 추구한다.

(좌)예의를 잃지 맙시다, 2013, inkjet print, 40x40cm ©염중호

(우)희망을 산책하는 보행기, 2013, 보행기, 확성기, 비닐봉지, 사운드장치, 가변크기 ©최대진



))
전시에서는 손톱으로 만든 꽃을 설치하기로 했다. 손톱을 사용한 의도는 손톱이 손에서 가장 가까운 물질이지만, 언제나 버려진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상된 것이다.
_리오넬 사바테



리오넬 사바테는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파리의 앙톤 웰러 갤러리, 프레데릭 지후 갤러리, 파트리시아 도프만 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상하이 비엔날레(2004)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손톱, 먼지, 휴지, 동전 등의 다양한 재료를 새로운 형태로 변형하고 재탄생시키면서 자신의 상상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좌)예의를 잃지 맙시다, 2013, inkjet print, 40×40cm ©염중호

(우)꽃 1, 2012, 살 껍질, 손톱, 바니쉬, 2.5×3.5×3.5cm ©Lionel Sabatté, Galerie Patricia Dorfmann

← VON →



))
많은 사람들이 대자연 앞에서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그것을 기념화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인간 문명이
개입된 자연을 기념화한 것이다.
_로와정



로와정은 노윤희, 정현석으로 구성된 듀오 작가이다. 그들의 작업은 동시대의 호흥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새롭게 구성된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관심사를 다양
한 모습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다채로운 매체와 형식으로 작업하며, 이를 통해 새
롭게 생성되거나 변모하고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 말한다.

(좌)예의를 잃지 맙시다, 2013, inkjet print, 20×20cm ©염중호
(우)어딘가의 기념품_나무, 2013, 입체 설치, 가변 크기 ©로와정